

특정 학교 출신 승진·영전 눈에 띄네

고성군, 5일자 공무원 139명 인사발령 ... 기획감사실장에 최완식 발탁

“줄세우기·뺑뺑이 인사” 혹평도

고성군청 최완식 주민생활지원 과장이 군수와 부군수에 이어 서열 3위인 기획감사실장으로 발탁됐다.

또 자치행정과 김승태 서무담당이 거진읍장 직무대리로, 농업기술센터 김종완 지도기획담당이 기술개발과장 직무대리로 승진(5급 사무관)했다.

〈인사발령 현황 9면〉

고성군은 5일자로 공무원 139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

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주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던 속초 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서열에 따라 무난하게 진행된 인사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자리를 이동시킨 경우가 많아 속칭 ‘뺑뺑이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특정 학교 출신들의 승진과 핵심 부서로의 영전이 눈에 띄

여 그동안 잠잠하던 판가르기와 줄세우기 인사로 회귀했다는 혹평까지 나오고 있다.

특정학교 출신의 승진과 영전에 대한 근거로는 이번에 5급으로 승진한 김승태, 김종완씨 모두 특정학교 출신이라는 점이 뒷받침하고 있다. 또 지난 2월 접경



최완식 기획감사실장

개발기획단 신설과 함께 배치된 박승울씨도 특정학교 출신인데, 불과 6개월만에 과장 승진 코스로 평가되는 자리로 영전됐다.

이와함께 지난 2월 인사에서 현내면장으로 발탁 승진된 최영국 면장의 경우 주민들이 얼굴도 미처 익히기 전에 군청으로 발령나 현내면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고성군이 그동안 수차례 속초 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약속하고도 이번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일부 군의원들에게 항의전화를 걸어 자신이 승진되지 못한 것에 항의하는 해프닝이 벌어지는 등 인사 후유증이 심각해 공직 내부의 불협화음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우리는 원칙에 따라 인사를 했으나,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4배수 승진 이어서 1명은 웃고 3명은 울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최광호 기자

2011 읍면 종합감사

9월28일~10월19일까지

고성군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2011년도 읍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군은 감사반을 편성해 이 기간 중에 읍면별로 3일씩 읍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인다.

읍면별 감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간성읍 9월 28~30일 △거진읍 10월 4~6일 △현내면 10월 7~11일 △죽왕면 10월 12~14일 △토성면 10월 17~19일.

최광호 기자

고성 여자 씨름 선수단 전국 대회 출전

신은하(죽정리) · 임현자(아야진) · 김형숙(거진8리) · 이경자(구성리) · 박명자(마달리)

홍봉선 단장(군의원) “내년 대회 유치 계획”

내년 전국여자전하장사 씨름대회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고성군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여자씨름의 발상지인 전남 구례군에서 개최된 제3회 국민생활체육 전국여자전하장사 씨름대회에 5명의 선수를 출전시켰다.

홍봉선 군의원을 단장(사진)으로 한 고성군 여자씨름 선수단은 지난달 22일부터 고성중고 앞 씨름장에서 집중 연습에 임한 뒤, 전국의 내로라하는 여자씨름 고

수 600여명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체급 별로는 60kg이하 신은하(40세, 현내면 죽정리), 70kg이하 임현자(42세, 토성면 아야진), 75kg이하 김형숙(거진읍 거진8리) · 이경자(49세, 죽왕면 구성리), 80kg이하 박명자(46세, 현내면 마달



홍봉선 단장

리) 등이다.

이들 선수단은 1일 오전 8시 군청광장에서 구례로 출발해 현지에 도착한 뒤 몸을 풀고 2일부터 시합에 임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 참가를 계기로 ‘녹색성장, 통일고성’을 널리 알리고,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해양심층수 ‘천년동안’과 해풍건조복어 ‘고성태’를 전국에 알리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차기 대회인 2012년 제4회 전국여자전하장사씨름대회를 고성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광호 기자

강원도 지정
 으뜸 음식점

염광활어횃집



- 세꼬시 30,000원
- 우렁 15,000원
- 성게 10,000원
- 물회 10,000원
- 소라 10,000원
- 산낙지 15,000원
- 광어 15,000원
- 개불 10,000원
- 명게 10,000원
- 오징어 10,000원

200명 300석을 갖춘 저희 거진항 ‘염광활어횃집’은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실하게 모시겠습니다

※ 영업시간 : 오전 9시~밤 12시 / 7.23~8.23 : 24시간 영업

염광활어횃집 대표 조선영
실장 김정환

☎ 682-3131, 682-0051